

大學生의 意識化 학습

金 容 基

(慶南大 社會學科)

1

오즈음 대학교수들 가운데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교수들은 드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 같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에서 얼굴을 대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학 생활과 관련된 대화의 창구가 거의 닫혀 있는지라 어쩌다 마주 앉아도 의사 소통이 쉽지 않다. 더구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학생 지도니 해서 유신 이래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교수들에게 떠맡겨진 학생 설득 내지는 감시(?) 역할은 교수-학생 간의 불신의 벽을 워낙 두텁게 쌓아 놓은지라 그 벽을 뚫고 한마디 이야기라도 건네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학을 상아탑으로 생각하고 이를 지키기에 급급하던 동안에 많은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자신들을 내던져 최루탄과 고문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그보다 많은 학생들은 스스로의 목숨에 불을 살랐다.

도대체 우리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고민하며, 어떻게 '의식화' 되었길래 젊은 목숨을 맞바꾸면서 기성의 제도적 권위를 부정하고 정치 권력에 대해 맞서는가?

2

본래 의식화란 단어가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부정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마디로 의식화라는 말이 개개인이 지닌 사고의 능력을 돋구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끔 교육한다는 말이고 보면 아무리 제도 교육의 틀 안에서라지만 대학의 교양교육 자체가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체로서의 의식의 각성을 목표로 한다고 할 때 서로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제는 지금의 대학생들이 대학의 제도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의식화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독자적인 학습을 대학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결국 수업료를 내고 강의를 듣는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충족할 수 없는 '진리'를 학생들은 강의실 밖에서—그것은 대학의 밝은 공간이 아니라 암울한 지하일 수밖에 없다—구하고 찾는다.

그러나 아직도 기득권자와 정치 권력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질서에 대한 모든 도전들을 불경하게 여기고 어떤 저항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좌경과 좌익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지만 의식화가 곧 좌경·좌익일 수도 없으며, 우리의 관심사는 차라리 의식화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현실에 대

한 복합적인 고뇌의 흔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입시 경쟁을 간신히 뚫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학은 경이로운 별세계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대학에 갓 들어온 학생들이 대학에 대해 갖는 기대는 너무도 순수하여 어떤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초·중·고교육 기관으로부터 대학까지 장장 12년 동안 강박 관념 속에서 시달려 왔던 대학에 드디어 들어오니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대학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학생들은 또다른 실망을 갖게 되며, 따라서 곧바로 선택의 여지도 없이 다가온 현실에 순응해야만 한다. 곧 입시 위주의 중·고등학교 교육을 넘어서 대학에 오니 취업 위주의 교육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교육과정 자체가 이를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도 애초에 우리 학생들에게 대학은 계층 상승 이동의 통로로서 강요되어 왔고 이러한 현실의 중압감은 대학의 신비로운 환상이 벗겨지면서 무장 해제 상태인 학생들에게 던져진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그랬듯이 적응력이 강한 학생은 곧바로 모범생이 되고 뒤돌아볼 새 없이 예정된 경로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나 교육학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모범생이란 결국 기성의 권위가 요구하는 기대에 적절히 부응하는 학생을 뜻하는 것이요, 따라서 '창조력'이 부족한 학생들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젊음의 무기인 창조력이 뛰어난 우리 학생들은 대학이 제공하는 것과 별거벗은 현실이 던져주는 충격 사이에서 지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이 시간에도 강의실 밖에서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4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생들이 곧바로 운동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학습 과정을 밟는 가운데 날카로운 현실 비판 의식을 갖추게 되고, 몇 차례의 시위 과정을 통해 공권력의 실체와 직접 맞부딪치게 되면 운동가의 경력을 갖추게 된다. 이제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들어보기로 하자.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주변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수험 공부에만 매달려야 했고 옆눈질 한번 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선배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로부터 다양한 책을 권유받는다. 특히 처음에 만나게 되는 몇몇 책으로부터 열게 되는 지식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충격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내용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 보는 것이 옳다.

먼저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책을 통해서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빛과 어두움을 확인하게 된다. 한국 사회의 산업화 과정이 맺어온 열매만을 지겹도록 암송해 온 학생들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과연 사회 정의는 어디에 존재하는지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가난이란 것이 개인의 운명이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자체가 가난을 계속 재생산해 내는 타임을 깨닫게 된다. 다음으로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이란 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를 민중의 편에서 재해석한 책이다. 소위 식민지 사관이나 실증주의적 역사 기술에 익숙해 온 학생들에게 역사 인식의 문제를 질문하고 민중적·민중적인 사관의 문제를 제기하게 될 때 양자는 배타적인 선택의 문제가 되고 만다. 이밖에도 베트남 전쟁에 대한 유일무이한 시사 평론이라 하는 「전환시대의 논리」나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담고 있는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등도 널리 읽히는 책이다. 나아가 이들과 함께 세계관의 전환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책이 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활 수기나 자전적인 기록물들이다. 특히 1970년 평화시장 근로자로서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바라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분신 자살을 한 전태일의 평전인 「어느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학생들이 그동안 주변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었는지 자신들이 추구하는 낭만과 사랑이 얼마나

현상의 세계에 머물렀는지를 반성하게 만든다.

한편 문학과 예술을 음미할 시간적 여유를 전혀 갖지 못하던 학생들이 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껏해야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이나 명작 전집에 실린 일부 작품만을 접하는 데 그친 학생들은 처음에는 작품 선택에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곧이어 선택의 기준에 일정한 틀을 갖추게 된다. 다시 말해 심미주의적인 예술관에 입각한 작품들의 비현실성과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이 작품들의 비굴한 운명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문학 역시 시대의 산물이며 따라서 시대가 요청하는 윤리와 소명과도 무관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교과서를 통해 한국 문학 최대의 작가요 작품이라 배워 온 그것들이 모두 천일야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모르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주의적인 경향의 작품들이 널리 인기를 끌게 되는데, '60년대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지식인의 좌절과 방황을 그린 최인훈의 「광장」이나 '70년대 산업화가 야기한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해결 주체를 제시한 황석영의 「객지」, '80년대 들어와 더욱 첨예화된 노동 문제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해결 방향을 제시해 준 조세희의 「난장이가 쓰아 올린 작은 공」 등이 새로운 베스트셀러로 등장한다. 시 분야도 마찬가지로 시론의 조작이나 언어의 유희에 그치는 시들이 배격되고, 유신 치하에서도 비판 의식을 가다듬어 온 김지하의 답시와 서정시들, 양성우의 「겨울공화국」, 신경림의 「농무」 등이나 '80년대 들어와 노동자들이 직접 쓴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 정명자의 「동지여 가슴을 닦대고」 등은 문학과 현실 사이의 유리된 과거를 복원시켜 주고 학생들의 현실 의식을 더욱 치열하게 한다.

이렇게 현실에 대해 개인 의식을 벗어나 사회 의식을 부분적으로 갖추게 되면서 다시금 깊어보는 문제가 지식인의 문제이다. 과연 지식인은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인가 하는 점에 대해 한번쯤은 번뇌에 싸이게 된다. 새로이 눈 뜨게 된 현실 의식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지식인의 골짜기

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시도하게 되고 민중지향성을 견지하고자 애를 쓴다. 이 과정에서 실존주의 작가 샤르트르도 새롭게 읽게 되고 시몬느 베이유도 만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생의 세계관이 재탄생하는 계기를 맞는다.

일단 현실 문제에 관심의 눈을 뜨게 된 학생들은 이어 보나 체계화된 지식을 흡수하기를 원한다. 「역사와 개인의 일생 그리고 그 양자간의 관계를 사회라는 데두리 안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삶의 과정이 우연한 것이거나 또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좌우되는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고 형성해 온 사회 구조라는 조건하에서 일정한 규칙과 경향을 수반하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토대를 마련하는 학문적 기초는 주로 철학과 경제학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삶의 지혜」, 「철학의 기초이론」, 「철학에세이」 등의 철학 개론류들이 널리 읽히는데 이들은 대개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다. 이들을 통해 학생들은 인간과 자연,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대한 세계관을 구축해 나아간다. 왜 유물론인가? 그것은 아마도 철학을 바라봄에 있어서 단지 세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을 통해 능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도구로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현실 세계의 구조적인 틀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법칙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은 경제학, 곧 정치경제학에 대한 학습을 해 나간다. 여기서 경제학의 기초 개념과 경제사, 자본주의 사회의 운동 법칙과 발전 방향에 대해 공부해 가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야 부분적으로 변화가 있지만 대학의 어느 강의실에서도 접하기 어려웠던 자본주의 사회 체제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은 사회와 역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진보적인 인식을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철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학문이란 것이 단지 지적인 호기심을 넘어서서 왜곡된 현실을 극복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성과 총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대학의 제도 교육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 그것은 곧 아카데미즘이거나 정반

대의 경향으로서 실용주의일텐데,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게 되는 것이다. 강의실의 울타리 자체가 제한하는 학문과 제도 교육의 한계함이 학생들을 강의실 안의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독서와 토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은 사회(과)학과 사회운동론 분야이다. 학생들은 사회적 생산의 기초로서 사회구성체의 성격과 발전 단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지난 2~3년 사이 활발하게 전개된 한국 사회 구성체 논쟁 혹은 한국 사회 성격 논쟁의 내용을 계속 연구하여 왔다. 사회구성체론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는 구성과 재생산 과정, 내외 모순 구조와 사회 이행의 관심에서 변혁의 조건과 변혁 주체에 대한 관심이 주축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사회 구성체 논쟁에 대한 관심은 이전까지 공부해 온 내용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구조적 성격을 지니는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모순의 역사적 연원은 어디에 있으며, 오늘날 어떻게 구조화되고 재생산되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전할 수 있겠는가? 또 학생들은 어떠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등등의 의문이 집약되어 사회 구성체 논쟁을 통해 다루어진다. 이는 흔히 대학의 학문 연구가 순수한 의미에서의 관념론적인 논의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에 비해 학문과 실천과의 결합을 꾸준히 고쳐하던 선상에서 구체적인 해답을 얻고자 추구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총체적인 상을 그려 보고자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사회 현실을 단지 '주어진 것'으로 또는 고정 불변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상에 비견하여 그 자체로 따져보아야 할 대상으로 삼고 변화의 가능성을 능동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관심은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로 세분화되어 학습된다. 노동 문제와 농업 문제, 여성 문제 그리고 과학 기술의 문제와 환경, 의료 및 주택 복지 문제 등 과히 우리 사회의 장래를 짚어진 주제 가운데 하

나로서 소양을 닦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88년과 올해에는 남북 교류의 가능성이 넓어지는 가운데 통일 문제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일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5

지난 '87년 현대사회연구소가 실시한 '대학생의 이념 경향 조사 연구'의 연구 결과 중 현대사 인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현대사를 보는 대학생들에게 변혁 이데올로기 편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 사회와 김일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셋째, 좌경 의식화된 학생일수록 민중적·계급론적 시각으로의 경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현대사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역사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다는 것이다. 관변 연구소의 연구 결과인 탓인지 아니면 조사 연구의 한계 자체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결론 역시 예상된(예정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가 단순한 현상 기술에 그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런 점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의 지위나 역할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적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답변이 이 글에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점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대학생들이 학습하는 것 가운데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도도 낮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교육이 단지 지배 이데올로기에 부응하는 점에 대해 질타하고 사회교육의 중요성과 민중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교육의 이념과 제도 및 방식 모두에 대한 이의 제기를 뜻한다. 그렇기에 대학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내지 못할 때 학생들은 스스로 학문 활동의 의의와 대학 생활의 방식을 별도로 찾아 나갈 것이다. 경쟁 위주의 교육, 주입식 교육에 머물러 있을 때 대학은 올바른 교육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대학이 사회와 괴리되어 자기 공간만을 고집할 때 대학이 스스로 정체성의 위기를 맞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